

김희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다 보여준 것 같아 만족”

“김희선한테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하는 반응을 보면 ‘이번에도 나를 잘 해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도 많이 얻고 감사하죠.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도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 김희선이 SBS 금토드라마 ‘엘리스’ 종영 소감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엘리스’는 지난 24일 최종회 9.1%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시청률 기준)로 막을 내렸다.

최근 화상으로 인터뷰한 김희선은 “예전에는 첫 방송이 20% 아래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 욕심에 15%는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청률 1위라고 하니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희선은 극 중 시간여행의 비밀을 밝혀려는 천재 물리학자 ‘윤태이’와 시간여행자이자 그 비밀을 쫓는 미래의 과학자 ‘박선영’으로 1인 2역을 소화해냈다. 전작 ‘나인틴’에서도 1인 2역을 한 김희선은 “한 사람을 연기하는 것보다 재미있다”며 “오롯이 한 역할만 하면 이제는 심심하다”고 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 김희선은 “대사 분량이 매우 많다”며 “드라마 촬영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선연이한테 감정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곧바로 태이로 다시 분장하고 최대한 빨리 감정과 연기 톤을 바꿔야 하는 점은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만큼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김희선은 “실제와 같은 40대를 연기하는 게 가장 편했다”며 “20대 연기는 생각보다 민망했다”고 떠올렸다.

“20대는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요. (1999년 드라마) ‘토마토’ 때 상징적인 머리띠와 곱창밴드로 포인트를 줬고 캠퍼스 룩을 입었죠. 사실 얼굴은 갈수록 수 있지만 목소리 연기가 어

SBS 금토드라마 ‘엘리스’ 종영 인터뷰

천재 물리학자·주원 엄마 1인2역 변신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 모두 소화

“주원·곽시양, 착하고 성실한 배우들”

려웠어요. 제가 20대 때 갖고 있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도 20대는 산뜻하게, 30대는 물리학 교수답게, 40대는 엄마로 모성애를 보여주려 했죠.”

김희선이 맡은 박선영은 ‘박진경’ 역을 한 주원의 엄마 역할이다. 주원의 엄마 역이라는 점에서 걱정도 했지만, 아들을 지키려는 뜨겁고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주원은 초반에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모성애가 다르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를 생각하며 연기한 적도 많고 제가 가진 모성애를 최대한 담으려고 했죠. 인상 깊게 봐주셨다면 받은 성공했죠. 주원 엄마로 나올 때 많이 울었다는 문자도 받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잘 표현된 것 같아 만족해요.”

‘엘리스’는 시간의 문이 닫히고 김희선과 주원의 재회로 끝이 났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윤태이를 제외하고 아무도 박진경을 기억하지 못했다. 박진경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지만, 기적처럼 윤태이를 기억해냈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김희선은 이 같은 엔딩에 대해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휴먼 SF를 내세운 ‘엘리스’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여행 SF로 어렵다는 평도 나

왔다. 김희선은 “모성애와 연결해 쉽게 풀려고 했는데 물론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나 비용적 한계로 처음 생각한 만큼 많이 못 보여 드린 것 같아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SF 연기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떻게 나올지 연기할 때는 몰라요. 첫 회에 태이가 미래에서 과거로 와서 총 쏘는 장면도 CG로 만든 총이었거든요. 상상에 맡겨서 촬영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됐죠. 상상하고 추측하며 연기하니 한계도 있고 어렵긴 했죠. 그래도 앞으로 더 질 높은 SF 장르를 위해 많은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주원, 곽시양에 대해선 착하고 성실한 배우들이라고 칭찬했다.

“주원은 막내라서 그런지 애교도 많고 살가워요. 연기도 잘하고 좋은 배우죠. 몸 관리를 많이 하는데 건강을 생각하면서 항상 제 것까지 챙겨주고 누나 출도가 웃도 벗어주고 많이 배려해줬죠. 곽시양도 너무 착하고 성실해요. 가끔 통화할 때 보면 늘 대본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저한테 ‘예쁘다’, ‘여신님이다’ 하면서 기분을 좋게 해줘서 촬영장 가는 게 즐거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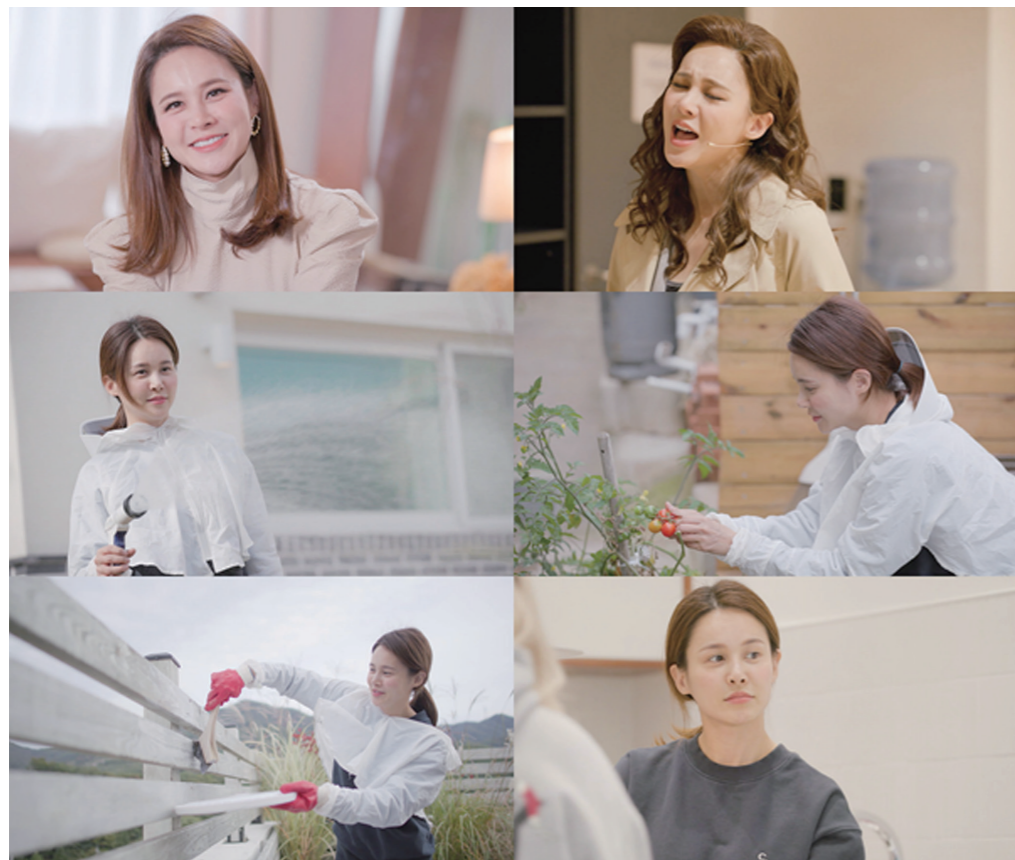
촬영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 촬영이 다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다. “25년 넘게 연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



은 처음이었죠. 지난해 11월부터 촬영했는데 코로나19가 2-3월께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야외 촬영이 취소됐어요. 모두 세트장으로 바뀌었고 무대 세트팅과 소품팀이 밤새가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드라마처럼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 없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김희선은 “20대 때는 원 없이 활동해 다시 가기 싫다.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웃었다.

“20대 때의 활동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지만, 당시엔 쉬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한 작품 끝나면 바로 다음 작품을 하고 수동적으로 연기했다면, 지금은 시간을 갖고 시나리오를 충분히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고 감독님한테 자유롭게 의견도 낼 수 있는 나이와 경력이 됐죠. 사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굳이 간다면, 엄마가 주는 용돈을 받고 원 없이 놀던 시절로 가고 싶어요.”



아이비, ‘온앤오프’서 전원생활 최초 공개

내일 오후 10시 40분 방송... ‘오프’ 양평 전원주택 방송 최초 공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양평 전원생활을 최초로 공개한다.

오는 31일 오후 10시 40분 방송하는 tvN 예능물 ‘온앤오프’에서는 11번째 뮤지컬 배우 아이비의 ‘온(ON) 모습과 양평에서 전원생활 중인 자연인 아이비의 ‘오프(OFF)’를 모두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 아이비는 뮤지컬 ‘고스트’ 프레스콜 현장을 선보인다. 과거 ‘지킬 앤 하이드’, ‘아이다’, ‘시카고’ 등 수없이 많은 무대에 올랐던 바 있던 아이비는 프레스콜을 준비하며 어딘가 모르게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그는 2016년 뮤지컬 ‘아이다’에서 시작된 무대공포증을 극복해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이어 아이비는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웃음 유발 최면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무사히 프레스콜 무대를 마친 아이비는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본인의 회사를 방문한다. 5번째 1인 소속사를 운영 중인 아이비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으니, 오늘부터 회

사의 모토를 바리다메로 하자. 싸게 행사를 많이 잡아달라”고 의지를 다져 웃음을 자아낸다.

‘오프’를 맞은 아이비는 양평의 전원주택을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2층으로 된 양평 집에 도착한 아이비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자연인다운 친근한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밀린 집안일을 마친 아이비에게 뜻밖 에 손님이 방문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올해 8살이라는 아이비의 절친은 익숙한 듯 집에 들어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함께 폭풍 랩을 까지 하며 유쾌한 하루를 보낸다.

또한 아이비는 저녁이 되자 집에 놀러 온 회사 직원들과 함께 바비큐를 먹으며 식사 자리를 가진다. 이어 그들 중 독특한 이력을 가진 직원이 소개되자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마마무 신곡 앨범 준비 과정 및 ‘오프’를 맞아 90년대로 돌아간 솔라의 추억 여행과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송민호의 본가와 작업실을 최초로 담은 일상도 함께 공개된다.

가수 비, 역대급 듀오로 컴백...3년만 새 앨범

“댄스의 끝...‘레이니즘’ 그 이상의 무대 퍼포먼스 기대”

가수 비(정지훈)가 3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와 매니지먼트 담당 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SAA)는 28일 비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비는 역대급 아티스트와의 듀오를 결성해 돌아온다.

비와 함께 할 주인공의 정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뛰어난 댄스 실력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할 여지없는 댄스 실력의 비가 자신과 견줄만큼의 실력자와 함께 한다는 소식은, 비

의 컴백 소식과 더불어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컴퍼니와 SAA는 비의 새 앨범 소식과 함께 “음악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댄스 실력자들의 만남인만큼 ‘댄스의 끝’이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무대로 회자되고 있는 ‘레이니즘(Rainism)’, 그 이상의 무대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며 “그동안 비의 무대를 그리워하며 컴백을 기다렸던 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디오스타’ 트와이스 지효 “정연 함께 못해 아쉬워”

“정연, 건강상 문제로 이번 활동 함께 하지 못해”

그룹 트와이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이번에 함께 활동하지 못하게 된 멤버 정연을 언급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트와이스 8인 나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쥬와 함께 하는 ‘트와이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팀의 리더 지효는 “라디오

스타’는 보통 게스트가 4명이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완전체로 나오게 됐다. 귀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정연이가 함께 하지 못했다. 나중에 정연이가 돌아오면 꼭 다시 출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연은 심리적인 긴장 상태와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 JYP 측은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정연은 트와이스 정규 2집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트와이스는 지난 26일 새 앨범 ‘아이즈 워이드 오픈(Eyes wide open)’을 발매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정규 1집 ‘트와이스타그램(Twiceagram)’ 이후 약 3년 만에 내놓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이다.

신동엽·김원희 13년만에 재회 ‘우리 이혼했어요’ MC

이혼 후 새로운 관계 가능성 제시하는 국내 최초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동엽과 김원희가 SBS TV ‘헤이헤이헤이’ 이후 13년 만에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MC로 다시 만난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이혼 후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이 목적이 아닌,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이혼 그 이후의 부부관계’를 다루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11월 첫 방송된다.

29일 ‘우리 이혼했어요’ 제작진은 “대한민국

에서 결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고 있는 통계가 현실인 만큼 어쩌면 꼭 다뤄져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며 “파격적인 소재인 만큼 더욱 세밀하고 깊이 있는 접근으로 기존의 관찰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혼부부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